

2002 Korea/Japan World Cup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하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MR 소견

강병성, 신명진, 이상훈, 양승오², 김성문, 이상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방사선과학교실, 울산대학교병원 방사선과학교실²

목적 : 축구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대중화된스포츠이며 육체적인 손상이 흔히 발생한다. 여러 손상 부위중에서 하지의 손상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골, 근육, 건, 인대 등의 다양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저자들은 2002년 한국-일본 공동개최 월드컵 경기에 참가했던 8명의 선수에서 나타난, 하지의 다양한 근골격계손상의 분포와 MR소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2년 한국-일본 공동개최 월드컵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 MR검사를 시행했던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남자선수였으며 연령은 26~34세 사이였으며 평균연령은 30세였다. 모든 선수들에서 동통이나 압통과 같은 증상이 있었다.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의 MR소견을 관찰하여 부상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근건연접부, 근육, 연골 손상 등으로 나누어분류하였다.

결과 : MR검사를 시행했던 8명의 선수들 중, 증상은 모두 하지에 있었으며 MR소견상 모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모두 훈련이나 시합중에 접촉에 의해 발생한 급성 손상이었다. 부상의 해부학적 형태에 따른 분류상으로는 근건연접부위를 포함한 근손상이 4예로 가장 많았고 순수한 근손상이 3예, 연골인 반월판손상이 1예 있었다.

결론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축구 선수들의 층이 두터워지고 경기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축구손상의 빈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축구손상의 진단에 있어서, 특히 하지의 관절손상뿐만 아니라 근과 건 손상의 조기발견에 MR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와 추적 관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